

설교제목: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설교본문: 열왕기 상 3장 3~5절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지혜’ (Wisdom)가 생각날 것이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왕으로서

재판을 잘하였고,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으며, 최고의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때가 가장 강하고 부한 때, 땅도 가장 컸던 때였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을 높이는 이유는 그가 최초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최고의 업적,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였던 일을 말씀하고 있다.

솔로몬은 믿음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지켰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린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기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잘됨을 믿음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임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모든 일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된다. 일천 번제란 하나님께 제사를 일천 번을 드렸다는 말씀이다.

일천 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 제사에 솔로몬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말씀이다.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하고, 열심히 진심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심에 주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천 번의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드렸다. 일천 번의 예배를 드린 그 날 밤, 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뵈게 된다.

솔로몬은 예배 처소였던 기드온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뵈게 된 것이다.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겠는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일?

높은 신분을 갖고 평평거리며 사는 일?

큰 부자가 되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일?

미운 사람이 있는데 혼내 주는 일?

이런 것 다 구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실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실 것이다. 다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바르게 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 일간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단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는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몹시 배고프셨고, 지치고 힘드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한 인간으로, 우리처럼 한 인간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단은 배고프고 고되며 힘든 예수님에게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따르면 무엇이든지 주고, 무엇이든지 누리게 해 주겠다고 시험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고 살겠다고 사단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열심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시며 그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저는 왕으로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 를 구한 일에 다시 감동을 받으셨다. 네가 왕으로서 오래오래 그 특혜를 누리기 위해 권세와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너의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은 권세와 부와 장수하는 복도 너에게 최고로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으며,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이며 부자로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솔로몬의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였기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 결과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로 최고의 권세와 부와 장수를 하였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산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 정말 구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못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12: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 하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 정말 구할 것을 구하여야 했다.

이렇게 구하여야 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구하오니!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다윗은 솔로몬과 같이 성전도 못 만들고 권세도 크게 누리지 못했고, 부와 장수도 하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께 구하였다.

시편

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을 말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해 달라는 간구였다.

만약, 솔로몬이 구하기를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덤으로 주시고, 또한 권세와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복을 덤으로 넘치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구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시간이다.